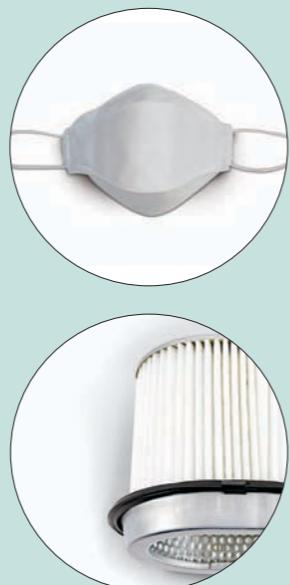


Conventional Meltblown PP for mask and filter 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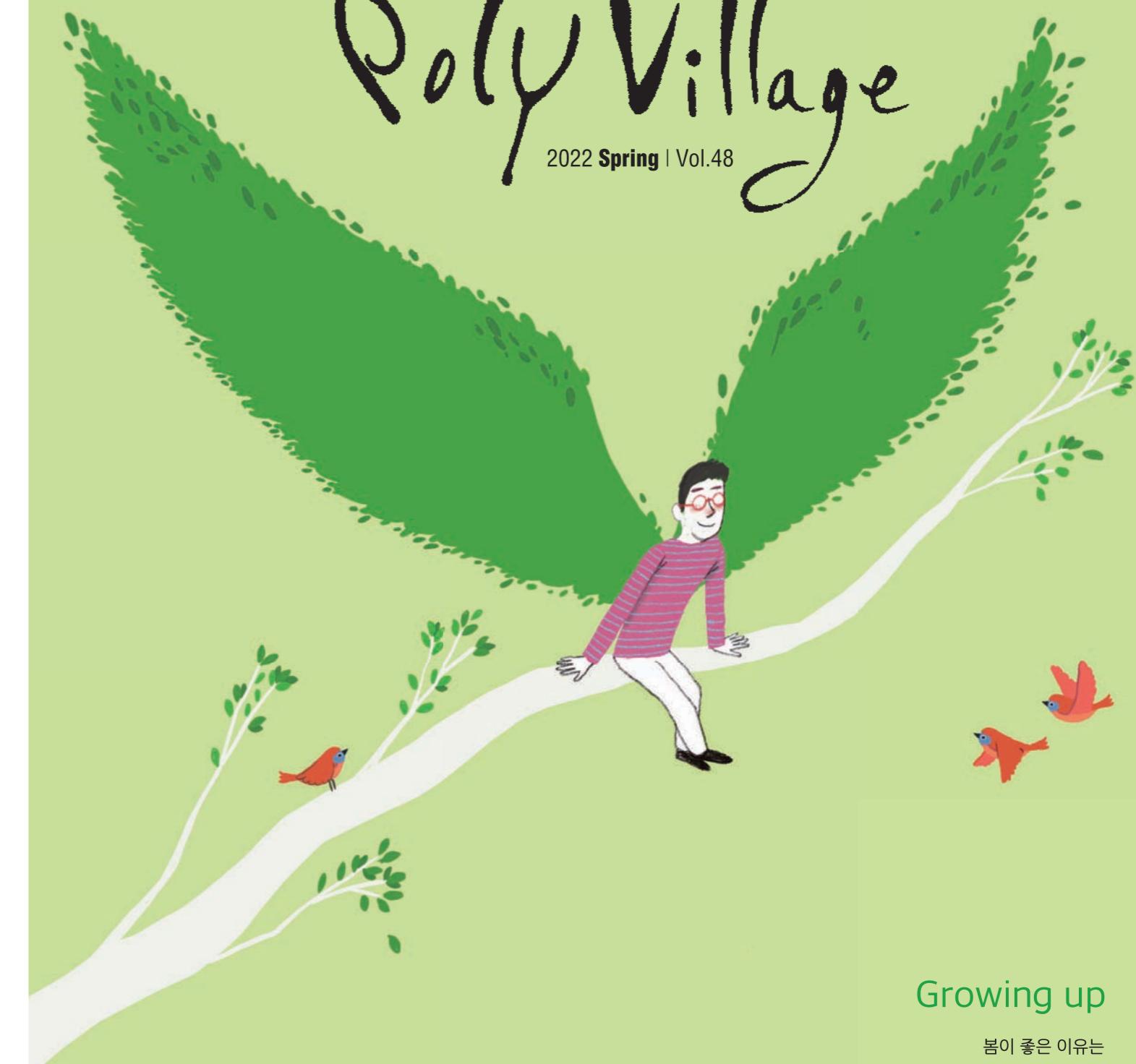
멜트블로운의 베스트셀러 **Moplen HP561X, HP461X, HP461Y, HP465Y**

폴리미래의 펠렛 멜트블로운 PP인 **Moplen HP561X, HP461X, HP461Y, HP465Y**는 멜트블로운 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품과 플라이를 최소화하며 설비의 정비 주기를 연장시킬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고성능 필터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Moplen HP465YHP**

Moplen HP465YHP는 고성능의 필터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된 제품입니다. 많은 고객이 추가적인 첨가제 없이 높은 효율의 필터를 만드는데 성공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ly Village
2022 Spring | Vol.48



Growing up

봄이 좋은 이유는
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야
그 꿈과 희망은 계속 자라고
우리는 잘하고 있어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한 사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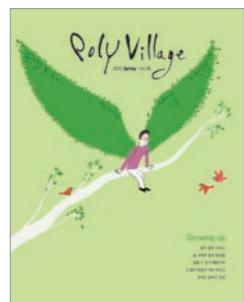
- 탈무드 -



CONTENTS

Poly Village

Vol.48 | 2022 Spring



PolyMirae Magazine

폴리마을 통권 제48호

발행인 김병현

발행처 폴리미래주식회사

Poly Village Vol.48 2022 Spring

발행일 2022년 3월 31일

기획 사보기획팀

디자인·제작 에브리띵디자인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김영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7층

TEL (02)2167-8914

With Poly PEOPLE

- 02 생각의 깊이
- 06 CEO 레터
친애하는 폴리미래 비즈니스 파트너 및 임직원 여러분
김병현 대표이사/사장
- 08 아주 특별한 만남
에너지 충전 완료! 우리는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입사원
- 14 자랑 좀 할게요!
“폴리미래 생산의 스페셜티(Specialty) 제품은 우리가 책임진다!”
생산1팀
- 18 공감 인터뷰
폴리미래인들의 새해 소망 모두 이루어지리라…
- 20 폴리 톡앤톡
폴리미래의 역사와 함께한 자랑스런 폴리미래인
- 22 폴리 브이로그
인생 첫 브이로그 | 봄날의 출근길 | 업무 일상
시장개발팀 윤찬미 주임 | 공정팀 서성오 주임



With Poly ISSUE

- 24 오늘 폴리미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우리의 자세
안전환경팀 임재영 팀장



- 28 폴리미래 브리핑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여정
지속성장팀 하구열 상무
- 30 뉴스 브리핑
- 35 인사동정
- 36 테마 리포트
메타버스, 이미 다가온 미래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상윤 교수



With Poly LIFE

- 40 트렌드 인포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함께 알아보아요!
자유기고가 명소연

- 42 나의 특별한 루틴
일상에 숨을 불어넣어 주는 나의 원동력은?



- 44 컬쳐 & 컬쳐
문화로 봄을 맞아해 봄
문화칼럼니스트 유진

- 48 퀴즈 & 힐링 아트 컬러링



친애하는 폴리미래 비즈니스 파트너 및 임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겸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흑호(黑虎)의 용맹함과 호기스러운 기운이 널리 퍼져 모든 분들이 뜻하는 바를 꼭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폴리미래는 지난 2021년 세계적인 대규모 폴리프로필렌 증설로 더욱 심화된 석유화학 산업 내 경쟁과 컨테이너/선박 부족과 같은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시장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매우 도전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당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관계사, 고객 및 지역사회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임직원 모두의 도움으로 우리가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안전/환경/보건 분야는 물론이고, 영업 및 재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SK어드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합작회사로 설립한 울산PP 주식회사의 40만톤 규모 신규 생산라인을 성공적으로 가동시킴으로써 우리의 확장 전략을 지원하여 글로벌 고객에게 우리의 우수한 제품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폴리미래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2022년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은 완전한 일상과 비즈니스 환경으로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폴리미래는 외부 어려운 환경과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유연히 대처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혁신 DNA를 되살려 과감한 도전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환경/보건 분야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계기를 통해 안전/환경/보건 분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 시킬 것이며, 모두가 존중하고 부려워할 수 있는 한층 더 성숙하고 안전한 폴리미래 사업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폴리미래의 지속성장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 방향을 토대로 주주사와의 논의와 협조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리미래의 폴리프로필렌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폴리미래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인 「뛰어난 성과, 역량 있는 인재,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아시아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모든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과 도움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성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2022년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김방현
대표이사/사장

에너지 충전 완료! 우리는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FM(Field Manual) 본래의 뜻은 군사작전 매뉴얼을 뜻하지만, 원리원칙을 지키고 정석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업무에 있어서 만큼은 늘 기본에 충실하고 규정을 잘 지키며, 남다른 열정과 에너지로 무장한 신입사원들이 있습니다. 폴리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릴 준비를 마친 이들 7명은 어떤 꿈을 품고 있을까요?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신입사원들의 자기소개를 함께 만나보시죠.





따뜻하고 건강한
조직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되고 싶은
사업자산관리팀
김동현 사원

또 다른 성장을 향해 도전한 폴리미래

사업자산관리팀 김동현 안녕하세요. 폴리미래 사업자산관리팀의 김동현입니다. 폴리미래에 입사하여 뜻깊은 한 해를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겨울이 지나 따듯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식품 제조업의 SCM 담당자로 2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근무 환경에 잘 적응하였지만, 식품이 아닌 다른 아이템의 물류 관련 업무를 배우고 역량을 쌓아 또 다른 성장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 폴리미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초기로 폴리미래는 전국에 마스크 원재료를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돋고자 후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한 줄기 빛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며 더욱 폴리미래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입사 후 각 팀의 선배님들을 보면 폴리미래가 따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인 저를 다그치지 않고 친절한 웃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빠르게 적응하여 오더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거나 실수를 저질러도 선배님들은 제 잘못을 따뜻한 조언과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1년간 많은 것을 배우며 최근에는 수출 업무까지 담당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여 폴리미래의 선배님들과 같이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폴리미래인이 된 것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발판으로 삼아 정진하겠습니다

생산3팀 노충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1년 8월에 입사한 생산3팀 신입사원 노충진 사원입니다.

저는 2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생산기술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문대학교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높은 학점과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며 준비하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의 문은 생각보다 더 높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폴리미래에서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리미래에 입사하여 인턴사원을 거쳐 수습사원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6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교육과정에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신경 써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기들이 있었기에 서로 의지하며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생산3팀의 일원이 되어 교대조 선배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교대조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폴리미래의 일원이 된 것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발판으로 삼고 싶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을 갖고 스스로 공부하고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폴리미래의 더 나은 미래에 보탬이 되는 노충진 사원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비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여 폴리미래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생산3팀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신동호 사원입니다. 여수로 나들이를 하러 가면 고속도로 중간쯤 수많은 불빛이 반짝거리는 풍경을 보며 무엇을 하는 곳일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되어 여천 산단을 가까이 보게 되었을 때 큰 설비들과 많은 배관이 연결된 것을 보고 무한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저의 목표로까지 이어졌고 이후 화학공학을 전공하여 폴리미래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이후에는 화학 공정에 대한 실무 경험이 없을 뿐더러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공정교육을 해주신 선배님들과 현재 생산3팀에 와서 실제 현장에서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니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고 모르는 것을 여쭤보면 항상 자세히 그림까지 그리며꼼꼼하게 알려주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노력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크게 들었고 저 역시 설비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는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은 신입사원이지만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면 훗날 저 또한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몇 배로 나눠 줄 수 있는 선배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미래의 가족 같은 문화, SAFETY FIRST 문화를 잘 이어갈 수 있는 폴리미래의 우수한 사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훗날 후배들에게
따뜻한 선배로
다가가고 싶은
생산3팀
신동호 사원



알면 알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더 좋은 회사, 폴리미래

생산1팀 허대승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오피레이터로 입사한 신입사원 허대승입니다. 석유화학산업 취업을 목표로 기업조사를 하며 처음 폴리미래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회사. 작지만 강한 회사라고 생각하여 더욱 관심을 두고 입사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 입사 기회가 주어졌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채용 전형에 임한 결과, 폴리미래에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의 인턴 기간 선배님들의 열정적인 교육을 받아 공정에 대한 이해를 키웠고,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5명의 동기를 만나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인턴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글을 빌려 열심히 교육해주신 선배님들과 우리 동기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생산1팀에서 현장 근무를 하면서, 인턴 기간 동안 배운 교육을 하나하나 접목해보고, 교대 조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노하우 전수로 공정에 대해 재미를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폴리미래는 알면 알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더 좋은 회사라는 것을 느낍니다.

막막했던 취준생에서 이제는 폴리미래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고 행복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제 몫을 톡톡히 하는 일을 잘하는 허대승이 되겠습니다.

폴리미래의 일잘러로
우뚝 서고 싶은
생산1팀
허대승 사원





그동안 준비해온
능력과 열정을 폴리미래에
모두 쓰아내겠다는
생산팀
조윤상 사원

폴리미래의 일원이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생산팀 조윤상 안녕하십니까! 현장 전문직으로 입사한 조윤상 사원입니다. 처음 폴리미래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했던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미래에 이 인터뷰를 읽을 후배들을 생각하면, 저 자신이 너무도 뿌듯하고 인생에서 가장 과분한 행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폴리미래에 입사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였고, 그 결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폴리미래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선배님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매 순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폴리미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독선적 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잘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더불어 특유의 친화력과 밝은 성격으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자신을 단련하며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 인생 가치관과 성격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순서와 결과를 중시하며, 일의 능률과 효율성을 항상 생각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시야를 넓히고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미래가치를 정하는 핵심은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학적 지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 ‘공학의 팔방미인’으로 통하는 화학공학도가 되기 위해 유기화학, 석유화학, 가스 공학 등 다양한 전공을 이론과 실습으로 습득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정 실험 및 산업안전관리 등 현장 직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을 목표로 모든 수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 생활에 융화되어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과 협동심을 길렀습니다. 이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폴리미래에서 제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자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폴리미래의 인재가
되고 싶다는
생산2팀
최성제 사원

초심을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성장하겠습니다

생산2팀 최성제 안녕하십니까. 2021년에 입사한 현장 전문직 신입사원 최성제입니다. 많은 도전 끝에 제가 원하는 기업인 폴리미래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오게 되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해 알아가면서 폴리미래의 가치관과 회사에서 중요시하는 안전성, 전문성 등이 제 가치관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폴리미래와 저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폴리미래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능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 기간 동안 동기들과 함께 서로의 부족한 점은 보완해 주며 모두가 함께 성장했습니다. 입사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선배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목표한 것에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30년, 40년이 훌러도 처음에 목표를 세우고 다짐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매 순간 노력하며 성장하는 현장 전문직 최성제가 되겠습니다.

간절함을 담은 입사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다

생산2팀 유재경 안녕하십니까! 끊임없는 도전 끝에 폴리미래에 입사하게 된 유재경이라고 합니다. 현장 전문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 사이에 ‘석화’라고도 불리는 석유화학 기업이 아무래도 가장 입사하고 싶은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그 토록 원했던 석유화학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동종업계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폴리미래에 입사하게 되어 저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직도 제가 여수산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믿기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 저에게 여수산단은 애경 맛집이었습니다. 밤에 광양에서 여수로 차를 타고 이순신대교를 지나가면 화려한 불빛들이 반겨주는 데 정말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경이 보고 싶을 때마다 자주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 화려한 불빛들 안에서 일을 하면 무슨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학업에는 크게 흥미가 없었고 운동하는 것과 친구들이랑 노는 것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항상 하위권에 머물렀고, 전문대학교 전자통신과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석유화학 기업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하며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기업 서류 전형에 통과한 곳이 폴리미래였고 너무 운 좋게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100개가 넘는 자기소개서로 꽉 차 있습니다. 가끔 이 문서들을 보면 힘들었던 지난 시절이 떠오르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다 보니 지금은 입사한 지 6개월이 되어 신입사원답게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만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 누구와도 대체 불가능한 오퍼레이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코로나 시국이지만 제 인터뷰를 보고 미래의 후배들과 취준생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누구와도 대체 불가능한
오퍼레이터가 되겠다는
생산2팀
유재경 사원





생산팀

“폴리미래 생산의 스페셜티(Specialty) 제품은 우리가 책임진다!”

사명을 건널 때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동료'라고 합니다. 동료간의 존중과 배려는 기본이며 최고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폴리미래가 글로벌 폴리프로필렌 선도기업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소통의 결정체, 생산팀을 함께 만나 보겠습니다.

폴리미래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른 4개의 생산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팀(여천공장, Line 1/2), 생산2팀(용성공장, Line 3), 생산3팀(평여공장, Line 4)으로 나누어 각 생산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생산팀은 2개의 생산공정을 운영하며, 34만 톤의 폴리프로필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ine 1에 2개의 기상 반응기를 보유하고 운전함으로써 주로 자동차 및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Line 2에서 생산하는 메토센 및 멜트 블로운 제품은 마스크 및 필터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코로나19 발생 후 폴리미래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생산팀의 사무실 구성원 및 역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박종영 생산팀장 : 생산팀 총괄 담당
- 하용우 조업과장 : 조업관리, 현장 설비 모니터링, 생산 계획
- 황호인 대리 : 품질관리, 투자사업 진행
- 김형팔 대리 : 공정안전자료 관리, 외부 감사준비
- 김기신 대리 : 현장작업 안전관리
- 이학철 주임 : 생산원가 관리, 물량 정산, 생산팀 문서 관리

다음으로 교대조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교대조는 4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조에 8명씩 총 3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2개의 생산공정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A조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말자

- 교대대리 : 현장 총괄, 공정 이슈 보고
- 교대기사 : 설비유지보수 관리, 작업허가서 발행과 관리
- 보드맨 : DCS 시스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정 운전
- 필드맨 : 현장 설비 조작, 관리 및 점검

위와 같이 각자 주어진 업무가 있지만, 팀에게 이슈가 발생하면 일심동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팀의 하루는 어떨까요? 함께 따라와 보세요! Go!
생산팀의 업무는 크게 오전과 오후 일과로 나뉩니다.

오전 일과의 시작은 전날 특이사항 및 금일 작업 사항 확인입니다. 출근하면 밤사이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지, 운전데이터는 안정적인지 트랜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금일 현장 작업 사항을 보며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합니다.

그 후 교대조와 일군 직원이 함께 회의실에 모여 작업 시 주의 사항, 그리고 회사와 공정 이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아침 회의 전, 후에는 다 같이 “안전제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안전한 공장을 위해 결의를 다집니다.

미팅을 마친 뒤 생산팀장과 조업 과장은 현장 순회를 하며 오늘의 작업 사항을 확인합니다. 팀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보고서 작성, 정산, 외부감사 준비 등의 업무를 합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안전작업 감시와 현장 지원을 하다 보면, 오전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면 생산팀장은 업무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파악하며, 팀원들에게 전달사항을 공유해줍니다. 팀원들은 공유 받은 사항을 토대로 오후 업무를 계획하여 진행합니다.

추가로 생산팀의 업무는 타부서와 협업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생산팀장은 다른 부서와 공정개선을 위한 미팅, 조업 과장은 사업자산관리팀과 생산 스케줄 조절, 각 팀원들은 안전환경팀과 법적 사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여러 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를 다 마무리하고, 특별한 공정상 특이사항이 없다면 생산팀은 출근한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퇴근을 합니다.

고온, 고압의 설비들을 운전하다 보니, 생산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혼자보다는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팀에서는 집중력 있는 태도와 동료를 생각하는 협동심이 필요합니다.



“

저희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매달 안전점검의 날, 철저한 변경관리와 가동점검, 안전활동 메시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미팅 전, 후 “안전제일!” 구호 외치기, 계단을 오르내릴 시 손잡이 잡기,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생산팀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생산팀은 거의 30년 동안 운전 중인 공장이네요? 그 중에서 가장 뜻깊은 해는 언제였나요?

2020년입니다. 2020년에는 20주년 창립기념일, 무사고 3,000일 달성을, 최고의 공장 가동률 등 많은 기록을 달성한 해였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에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담긴 제품인 메토센으로 마스크를 생산하여, 세계적 보건에 기여한 점이 가장 뜻깊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석유화학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안전입니다. 생산팀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폴리미래는 경영진부터 전 직원까지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안전



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매달 안전점검의 날, 철저한 변경관리와 가동점검, 안전활동 메시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 없는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업무미팅 전, 후 “안전제일!” 구호 외치기, 계단을 오르내릴 시 손잡이 잡기,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등 사소하지만 다양한 안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PSM 'P'등급, 무사고 3,600일,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A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입사하여 최근에 업무를 맡은 신입사원을 만나보았는데요, 신입사원이 바라보는 생산팀은 어떤가요?

조윤상 사원 : 생산팀은 활력이 넘치는 팀 같습니다. 그 이유는 24시간 긴장감 있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침착함과 여유를 잃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에너지 넘치게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선배님들의 이러한 모습을 배워 어떠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고, 활기를 잃지 않는 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대승 사원 : 생산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쁜 상황에서도 무전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일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통을 통해 지금까지 사고 없이 공장이 운전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소통을 통해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일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생산팀의 2022년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한 대정비(Turn Around, TA) 진행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일 동안 진행되는 대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정비 기간에는 공장을 가동 정지하여 수리가 필요한 장치들을 점검하고 정비합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공정상 개선이 필요한 곳을 작업합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작업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며,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기에 더욱더 안전사고에 유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생산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개인의 역량 및 생산지표 모두 작년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2022 호랑이해

폴리미래인들의 새해 소망 모두 이루어지리라…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이며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돌파 감염, 백신 접종으로 모두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올해에는 호랑이의 기운을 담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품 개발에 힘쓰고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독서를 통한 교양도 쌓아 건강과 마음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좋은 곳으로 가족여행도 가고 오랜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 보며 행복을 나누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도 초심을 잊지 말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위해 힘냅시다!!

기술팀 김학상 팀장

임인년(任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활기찬 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폴리미래 임직원들이 저마다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새해 소망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와 희망찬 내일에 대한 기대를 들려준 폴리미래인들의 따뜻한 소망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불어 소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멋진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22년 새해 소망은 건강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정팀 하대봉 팀장

안녕하세요, 안전환경팀 장수빈 주임입니다. 제가 2022년에 꼭 하고 싶은 일은 해외 여행입니다. 겨울에 아주 더운 여름나라에 가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기 저기 구경도 하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환경팀 장수빈 주임

2022년에는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적응하여 우리 폴리미래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함께 어려운 2022년 한해를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One winning team! 파이팅!

내수영업팀 임종석 주임

폴리미래 임직원 모두의 소망 하나하나도 다 이루어져서, 폴리미래인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2022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장개발팀 박종윤 과장

저의 소망은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검은 호랑이의 용맹함과 튼튼함으로 올 한해 모든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제일~! 안전제일~! 폴리미래 파이팅~~!"

기획팀 박재성 과장

몇 년째 계획만 세우고 있었던 운전 면허 따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올해는 꼭 직접 운전해서 국내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오너 드라이버가 될 수 있겠죠?^^

재무팀 임미지 주임



올해 소망은 2년간 코로나19로 계획만 세우고 가지 못했던 여행계획 실천하기! 해외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여행을 통해 리프레시하고 싶습니다.

"코로나야 이제 떠나 줄 수 없겠나?"

공무팀 신경수 주임

안녕하세요. 임인년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아무 사고 없이 연말을 맞이하는 폴리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꼭 코로나19가 물러나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세요.^~

물류팀 김정호 사원

강인한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근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원년이 되어, 마스크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하고 맛집 투어도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2022년 새해에도 폴리미래 모든 동료 직원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해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산3팀 이홍석 팀장

폴리미래의 역사와 함께한 자랑스런 폴리미래인

10년, 25년, 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폴리미래의 성장과 함께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의 폴리미래가 있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큰 뜻을 담당하며 희로애락을 함께하였습니다. 이번호에서는 2021년 기준 장기근속자 중에서 무작위로 10명에게 장기근속에 대한 감회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동안 폴리미래에 헌신하고 기여한 모든 장기근속자에게 우리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안전환경팀 김태수 부장



25년 동안 비바람에도 동고동락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폴리미래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구매팀 송경식 팀장



입사한지 엊그제 같은데, 정신을 차려 보니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사회생활 30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후회되는 나날도 많아집니다.
체력은 푸르렀던 그 시절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항상 초록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나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많은 날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안전환경팀 양정교 부장



30년의 긴 시간 동안 안전하게 가족들을 잘 돌보며 보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였지만 폴리미래는 안전하면서 영원한 회사가 되길 희망합니다.



생산2팀 이태양 사원



사업자산관리팀 정재근 과장



기획팀 유민희 과장



생산2팀 안대권 사원



사회생활을 폴리미래와 함께 처음 시작했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격려와 위로를 나누며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팀 구석훈 차장



내수영업팀 박철민 차장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늘 함께하는 동기들과 같이 축하 받게 되어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선배님, 동기들과 남은 시간 행복하고 보람된 회사 생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산2팀 안대권 사원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현장 속에 미안하게나마 보탬이 됐다는 것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 아무리 비싸고 튼튼한 시계라 할지라도 손톱보다 더 작은 텁니바퀴 하나만 없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폴리미래인들이 제 각각 맑은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가 되어 폴리미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근속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동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인생 첫 브이로그 | 봄날의 출근길 | 업무 일상

다들 한 번쯤 다른 사람의 하루가 궁금했던 적 있지 않았나요? 브이로그(Vlog)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공개한 일련의 일기장과 같은 기록을 말하는데요. 이번 풀리 브이로그에서는 스스럼없는 일상생활부터 프로페셔널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까지 담은 시장개발팀 윤찬미 주임, 공정팀 서성오 주임의 아침부터 밤까지 밀착 브이로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장개발팀 윤찬미 주입니다. 소박하고 루틴한 저의 일상을 소개하며, 저희팀 업무 패턴도 알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일거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파이팅 해보실까요?

VLOG ONE 리얼 하루 일상 브이로그를 공개합니다!



맛집이 즐비한 회사 위치상 이쁜 맛집에서의 저녁식사를 기대하셨을 텐데요. 평상시엔 집에서 간단히 먹고 혼자 독서나 운동을 즐기는 편이에요. 오늘은 홈트를 해보려 합니다! 팬데믹 전 까지만 해도 강습소에서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요즘은 홈트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구요. 오늘도 홈트로 하루를 잘 마무리 했습니다.

#홈트 #퇴근 #명상 #일상생활 #하루 끝



오늘은 아침에 준비가 늦어서,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날씨는 꽤나 따뜻해졌지만 오늘은 안개가 많이 낀 날인가봐요. 회사가 아주 희미하게 보이네요. 오늘도 만만치 않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피이팅!

#출근길 #택시_빨리 가주세요



아무래도 회사가 뷔 맛집이다 보니 회사 뷔는 지향을 해야겠죠? 지난 밤 사이 온 메일을 정리한 후 라운지에서 커피를 수혈하고… 간식 충전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당 충전도 함께하려고 초코 송이 꺽한 건 안바밀입니다…하하

#커피 #너 없이 못 살아 #커피 수혈 중
#초코송이 #당 충전 #뷔 맛집 #회사 뷔



매주 월요일은 판매시장 동향과 판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판매 채널 담당자분들과 미팅을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출장이 제한적이다 보니 점점 웹미팅이 늘고 있는 추세라 미팅 업무가 일상이 되었어요.

#비대면 #코로나 #화상회의
#벌써_오후 #힘내자

Like

VLOG TWO

화창한 어느 날, 회사에서 열일하는 직장인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공정팀 서성오 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부터 하루를 마칠 때까지의 직장인 vlog를 공유해보려고 하는데요. 여수공장에 도착해서부터 시작되는 저의 하루 24시간 중 회사에서 열일하는 직장인 vlog예요. 사실은 일만 해서 평범한 하루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다시 오지 않고,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으므로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곳은 제가 항상 아침 시간에 참새 방앗간처럼 들리는 카페테리아 공간입니다~ 여기 탐비실에는 향시 와서 마실 수 있는 커피나 차 종류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아메리카노를 대신해 건강을 위한 보리차를 꺾었습니다! 아침에 먹는 유산균도 빼놓을 수 없죠.

#출근 #보리차 #유산균



오후에는 현장으로 이동해 꼼꼼하게 설비를 점검해봅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어요. 날씨가 화창해서 그런지 현장 분위기도 활기찬 것 같아요.

#작업 진행사항 확인 #설비점검 #안전제일



하루의 마무리는 주로 가볍게 산책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야경을 보며 피곤함을 날리곤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야경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다채로운 색깔의 빛이 보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산책 #뷔 맛집 #하루 마무리



매일 작성하는 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퇴근 이후에는 자기계발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영상을 보며 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vlog로 하루를 남긴 특별한 날이니까요!

#일기작성 #자기계발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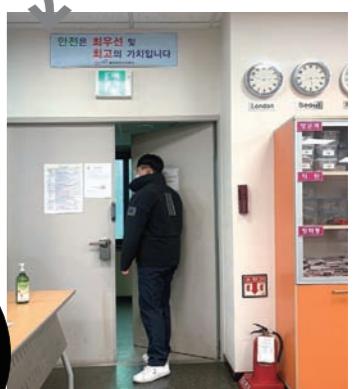
오늘 저녁엔 여수 맛집 낭만포차로 와왔어요 ~ 싱싱한 해산물 보이시나요? 아까 퇴근 때부터 정해둔 저녁메뉴라서 언제 완성되는지 두 손 모아 기다렸습니다.

#낭만포차 #삼합 #맛저



직장인의 영원한 단짝인 음료를 쟁다면 오전 근무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to do 리스트를 점검해보고 도면 검토와 보고서를 작성해봅니다.

#업무 시작 #도면 검토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에 현장 점검까지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나니 벌써 퇴근시간입니다! 저녁메뉴는 심합으로 정했는데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퇴근 #행복 #저녁메뉴 생각

Lik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우리의 자세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환경팀 _ 임재영 팀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자의 리더십
2.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구축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4.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5.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6.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7. 종사자의 의견청취
8. 중대산업사고 발생시의 조치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한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에 더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 법 제정, 10월 5일 시행령 제정으로 올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게 하여 모두가 존중하고 부려워할 수 있는 폴리미래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안전/보건 분야를 최우선 가치 및 정책으로 여기고 강력한 실행력과 필요한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온 결과 지난 2월 12일 3,600일 무재해 기록과 모든 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PSM, P/SMS, A/공생협력 : 상위 10% A등급)을 획득 유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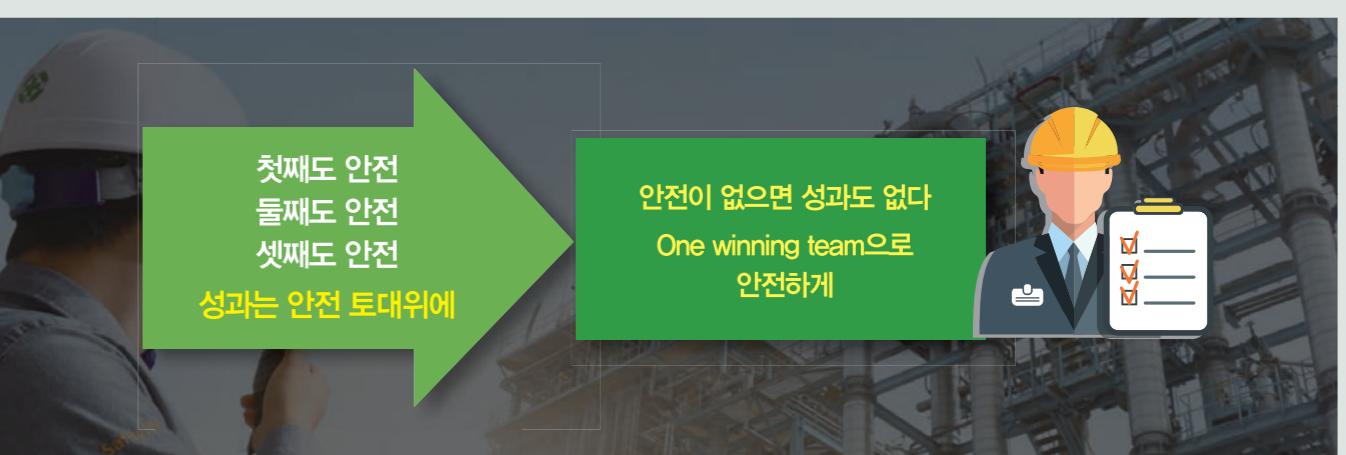
1. 강력한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 및 리더십
2. 철저한 변경관리 및 가동 전 점검
3. 강화된 작업위험성 평가 및 작업현장 TBM(Tool Box Meeting)
4. 위기대응 시스템 지속 정비 및 훈련
5. Back to Basics Rule Campaign_공식 미팅 시
“안전제일”구호 제창 등
6. 정기적인 LyondellBasell 안전점검 및 개선
7. HSE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법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안전/보건 분야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폴리미래 전체 임직원들은 안전/보건 분야에 있어 그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기본 및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안전문화 정착의 큰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폴리미래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리의 준비상황과 추가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개선사항들은 철저한 준비 계획을 거쳐 수행될 것입니다. 앞으로 강화하여 추진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동 전 점검 및 위험작업의 현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실행
 - 작업 전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철저한 TBM 실시
 - 가동 전 점검에 충분한 시간 및 인력을 투입
2.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을 위한 회사의 적극적 지원강화
3. 안전 활동 및 안전메시지 등 기록관리 철저
4. 위기대응 시스템의 지속적인 강화 및 주기적 훈련
5. 회사 안전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한 안전문화 향상
6. 관리자(Management)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대화 및 현장점검
 - 대표이사 월 2회 정기적 공장방문 - 경영성과 설명회/현장점검 및 직원과의 대화
 - 협력업체 관리 강화 - 안전관리비 반영, 사전 작업위험성 평가 및 안전작업 계획

폴리미래는 안전/보건 최우선이라는 경영원칙과 'One Winning Team'이라는 중요한 행동 가치를 바탕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안전활동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없고 쾌적한 사업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사내교육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법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안전/보건 분야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제일” 안전구호 외치기!

우리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강력한 실행력의 첫걸음으로 공식 미팅 시 “안전제일” 구호를 제창합니다.



전사 위기관리 훈련 진행

위기대응 시스템의 지속적인 강화 및 주기적 훈련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없고 쾌적한 사업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여정

오늘날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개발 및 생산되기 시작한 이래로 그것의 편리함과 경제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와 탄소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등은 인류에 또 다른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장팀 _ 하구열 상무

지금까지의 플라스틱은 '자원 채취 – 다량 생산 – 폐기'의 선형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순환경제는 사용된 자원이나 에너지의 회수, 그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이용/재활용, 재활용 산업 성장 촉진 등 '자원의 선순환'을 이루는 친환경 경제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2018년 자원 순환 기본법 시행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재생 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이·유리·철 제조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도 2023년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환경오염 개선 등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 등의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폴리미래도 양주주사의 적극적 지원 하에 이를 전담할 지속성장팀을 조직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ing)과 기계적 재활용(Mechanical Recycling)



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학적 재활용은 현재 기술의 한계와 투자 경영 환경을 극복해야 하며,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PP제품을 생산하는 폴리미래는 순환을 촉진하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소재를 공급하는 폴리미래를 통해 우수한 재활용 자재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고객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돋고자 합니다.

기계적 재활용은 이미 사용된 플라스틱을 선별, 세척, 분쇄 등의 기계적 처리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폐기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이유가 이러한 기계적 재활용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계적 재활용 PP제품은 제품 별 차이는 있으나 신제 중합 제품에 대비해 제품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80%를 줄일 수 있고, 제조 시 냉각 등의 물, 에너지 소비의 절감, 60% 정도의 산성화 방지, 90% 이상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재활용에서는 재활용을 거치면서 충격, 인장, 굴곡 강도 등 소재 본래의 물성 감소, 산화에 의한 색상 변화, 외관 불량, 수거된 플라스틱을 선별, 세척 불량, 오염 등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재활용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점점 더 사용되는 용도 범위 및 가치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폴리미래도 이런 기계적 재활용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 PP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품 최적화, 고기능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목적에 맞는 버진(Virgin) PP 제품을 만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다회용에 적합하도록 물성과 색상이 변화되지 않는 내구성, 산화안정성에 맞는 제품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고기능성 PP 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HCOPP 제품을 이용해 무게 절감을 통한 원천적 플라스틱 수요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돋는 방법과 수축률 및 가공성 개량을 통한 유니소재(Uni-material)를 적용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을 거치면서 충격, 인장, 굴곡 강도 등 소재 본래의 물성이 감소하고 산화에 의한 색상 변화와 외관불량 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하이팩(Hifax)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충격과 가공성을 개선하여 가공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흐름성 개선제를 개발하는 등 순환재 전환에 적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현장에서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이나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사후 분리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선별, 세척, 분쇄, 분리해서 만들어진 펠렛 모양의 PP소재를 확보하고 물질의 분자량(MFR), 재료의 성분, 본래에 가진 소재 특성을 분석하는 활동으로 무색, 백색, 검정색, 기타 색상 별, 출처 별 물성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양한 자료를 축적합니다. 이렇게 얻은 물성을 바탕으로 적합한 버진 PP를 조합하여 재생 수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이고 재현성 있게 생산하여 다양한 산업소재로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통되고 있는 재생 소재들은 대부분 품질이 불균일하여 용도가 제한적이며, 고객사가 요청하는 특성에 맞는 순환재 PP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 따른 약화된 물성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제품에 맞는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료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고객이 필요한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 PP를 개발하기 위해 조성물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PP는 용도가 매우 다양하며, 각 용도별로 요구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 PP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조성물 레시피가 필요하며 고객 요구조건에 순환 PP 재료를 맞추어 줌으로써 차별화된 재활용 PP 순환재 공급자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생 소재만으로는 고객사들이 요청하는 물성을 가진 재활용 PP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폴리미래가 가진 고품질 PP와 적절한 배합비를 빌려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 물성과 가공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넷째, 개발된 재활용 제품의 제조 레시피는 재활용 제품, 물성개선제, 기능성 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이들이 잘 분산될 수 있도록 혼합 배합기, 압출기, 제립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고객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제조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탄화물 및 흐름지수, 외관 등 여러 가지 항목의 품질 검사를 거쳐 기계적 재활용 제품이 제조되며 물성 및 특성을 평가하여 목적하는 규격에 통과된 제품은 전국에 산재한 자동차, 생활용품, 가전, 섬유, 연포장, 산업용도로 고객의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섯째, 재활용 제품은 원료의 확보처에서부터 다양성을 가지므로 제품의 오염 방지, 조성 등 원료의 출처, 제조 시의 변화, 제품의 신뢰성 등에서 제품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술적 정보서(TDS), 물성표, 안정성 데이터(MSDS), 제품성적서의 판매를 위해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충족하고 판매활동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분리, 제립, 재활용 복합제 제조 등의 표준 시스템 인증(Global Recycled Standards)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폴리미래는 현재 PIR(Post Industrial Recycled) 재생 소재를 이용한 4가지 재활용 PP를 개발하고 시험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사용 후 분리된 PCR(Post Consumer Recycled) 재생 소재를 이용하여 자동차, 가전, 생활용품, 산업용 소재 등의 용도에 맞는 고객 맞춤형 순환재 PP(Circular PP) 5종을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3월부터 순차적 시생산과 고객 인증 작업을 거쳐 사업화를 통해 폴리미래 고객과 협업하여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폴리미래는 2030년, 2050년까지 국가적 중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고 법적 요구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을 확보, 적기의 투자, 인재를 육성하려 합니다. 이에 폴리미래는 PP 전문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며 순환 경제 확립과 탄소 중립을 통해 인류와 사회에 공헌, 기후변화 대응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News briefing + PolyMirae

2022 Spring

안전환경 성과

폴리미래는 2021년 무재해 11배수(3300일)와 무사고 9년을 달성하였고, 지난 2022년 2월 11일부로는 무재해 3600일을 달성했다. 이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얻은 값진 결과다.

여수시 특별안전점검, SMS 등급평가,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대기/수질 환경 불시 점검 등 크고 작은 외부 점검들에 대응했고, 큰 자적사항 없이 마무리되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점검(안전점검의 날 행사, 기동전진점검, 통합내부감사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했다. 압력용기, 승강기, 호이스트와 같은 공정 설비들 또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를 발견한 설비는 수리했다.

CAPEX 투자사업을 통해 오래된 소방설비를 교체하여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이 감소하였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빗물 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11월에는 PMC Safety Day 행사를 진행했는데 사고발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역할을 나눠 실질적인 재난 조치 훈련을 실시하고 신규 설치된 구조장비, 안전장비를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장 직원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들도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안전환경팀 장수빈 주임



대한산업안전협회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폴리미래는 지난 2021년 8월, 9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진행했다. 작업환경 측정은 반기마다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하는 환경에서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측정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혹은 시설을 개선하여 작업자에게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폴리미래 작업환경의 유해인자는 소음, 분진 등 총 12개이다. 유해인자에 따라 1시간에서 8시간 동안 근무 중인 직원들을 통해 시료를 채취하여 작업자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양을 분석한다.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모두 기준 이하 혹은 불검출로, 유해인자가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소음의 경우, 기준 값과 유사하게 측정되어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 귀마개 착용을 강조하고, 장시간 소음지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안전 표지를 추가 부착했다.

안전환경팀 장수빈 주임

공생협력 프로그램 A등급(상위 10%) 획득

폴리미래는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안전보건공단 주관의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고 등급인 A등급(상위 10%)을 획득했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한 협력업체를 위하여 모기업 주도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협력업체에 기술/재정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이다.

공생협력 프로그램 A등급(상위 10%) 획득은 협력사 협의체 등에서 나온 각종 이슈들을 각 관련 팀에서 적극 대응하여 위와 같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폴리미래의 협력업체에 대한 높은 안전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결과다.

안전환경팀 박철 과장

폴리미래 온실가스 배출 계획 제3차 검증

폴리미래는 지난 2021년 10월 12일~13일 이틀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3차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폴리미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으로 2007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부터 참여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처음 시행된 2015년부터 현재 제3차 계획기간까지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폴리미래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사용량을 기준보다 감소시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스팀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진행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3차 현장 검증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전문 검증 기관이 폴리미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온실가스 배출 설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산정량을 계획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단계로 부적합 사항 없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과 감축활동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탄소중립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하겠다.

안전환경팀 정준호 대리

필맥스사, 안전환경/품질 벤치마킹을 위해 여수공장 방문

폴리미래의 고객사인 필맥스가 폴리미래 안전환경보건 및 품질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여수공장을 방문했다. 벤치마킹은 폴리미래의 안전환경/품질 시스템 소개 및 현장 방문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폴리미래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안전 문화 향상 캠페인인 '필수 안전 수칙' 및 '모든 미팅 시작 전 안전 구호 제창' 등의 사례를 전파했고, 추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안전환경팀 박철 과장

News briefing + PolyMirae

2022 Spring

한국화학공학회가 주최하는 홍보 전시회 참가

폴리미래는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화학공학회 주관 '2021년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의 홍보 전시회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여러 학교의 학생과 교수 그리고 화학업계 종사자 등 약 2,500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석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학회 행사다. 이 기간 동안 약 1,200여 편의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고, 25개 업체가 기업 홍보, 기기전시/시연과 현장 면접을 위한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 전시회를 진행했다.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 행사를 통해 폴리미래는 기업홍보와 제품 홍보활동을 진행하며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인사노사협력팀 유지연 사원



안전의 날 행사 및 전사 위기관리훈련

폴리미래는 지난해 11월 23일 여천공장에서 안전&보건을 주제로 한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주제 아래 오전에 전기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향양교육 실시, 밀폐공간 작업훈련, 추락방지 조치훈련, 원격자동제어 모니터 분사 훈련을 실시했고, 오후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위기관리 훈련을 실시했다.

위기관리 훈련은 1부, 현장 소방훈련(화재 진압 및 대피훈련, 구조&구급 훈련), 2부, 도상훈련으로서 공장 위기관리 대응훈련(현장대응훈련, 유가족 및 언론 대응훈련), 3부, 본사 위기관리 대응훈련으로 구성하여 실시했다.

유가족 및 언론대응 훈련에서는 임의로 구성된 기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압박 질문을 하고, 대변인이 답변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을 통해 직원들은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다.

훈련 후 이어진 대표이사 및 외부 전문가의 강평은 이번 훈련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안전환경팀 김태수 부장

Extruder 기술 회의를 위한 Coperion 공장 방문

폴리미래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 Extruder 제조사인 Coperion을 방문하여 기술회의를 진행했다. 폴리미래는 라인1/2/3에 Coperion에서 공급한 Extruder 3기를 사용하고 있다. Coperion은 세계 제일의 Extruder 공급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Extruder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 가동한 울산피피(UPP)에도 Coperion에서 Extruder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Coperion사의 Hans-Peter Neuberger씨는 기술엔지니어 출신으로 2010년부터 10년간 중동 Coperion 담당 책임자로 근무 후 오는 2022년 9월부터 아시아 담당으로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폴리미래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제품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truder를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제조사인 Coperion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Coperion 방문 시에도 Barrel 마모 및 교체시기, Screw 교체 및 Spare 확보방안 논의, Extruder PLC Control System Upgrade 등 Extruder를 최고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정팀 하대봉 팀장

평여공장 SMS 심사 A등급 획득

폴리미래는 지난해 11월 10일, 11일 이틀간 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평여공장 SMS(안전관리시스템) 심사를 받았다. 이날 심사에서 평여공장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지난 2019년 여천공장, 2020년 용성공장 A등급 획득에 이어 폴리미래 전 공장이 SMS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SMS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기관(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각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및 이의 운영 정도를 매 4년마다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된 등급에 따라 차등관리 실시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A/B/C]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관리하고 있다. SMS의 A등급은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대상 업체의 10~20%에만 부여되고 있으며, 우리의 이런 성취는 안전/보건 최우선이라는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안전활동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한 결과로 여천, 용성, 평여 전 공장 A등급은 세 곳 모두 동일한 안전 수준을 갖췄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

안전환경팀 박철 과장

여천, 용성공장 한국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

폴리미래는 2021년 12월 13일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진행된 2년 정기 안전점검을 받았다. 평여공장은 2020년 점검 결과 우수로 2021년 정기 검사가 면제되었으며, 여천, 용성공장만 정기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화재보험협회 정기 점검은 화재로 인한 각종 위험의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특수 건물의 화재보험 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보험설계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현장의 철저한 안전 관리 및 관련 팀의 적극적 대응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2021년 정기 안전점검이 무사히 완료되었다.

안전환경팀 박철 과장

News briefing + PolyMirae

2022 Spring

LyondellBasell과 기술교류 회의

폴리미래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탈리아 페라라에 위치한 LyondellBasell의 연구개발 센터와 기술 교류 회의를 가졌다. 기술담당 임원인 하구열 상무를 비롯한 폴리미래 본사 및 제조 부문의 관련 팀들이 함께 참석하여 분야 별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으며 LyondellBasell의 최신 개발 제품과 현재 연구 중인 신규 촉매의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유럽 화학물질 규제 현황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유럽 및 한국에서 개발/판매를 진행 중인 제품과 재활용 기술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명 주기가 끝난 제품의 재활용(PIR)과 소비를 통해 완제품의 생애주기가 끝난 제품의 재활용(PCR) 플라스틱 적용사례와 기술적인 지식을 상호 교환했다.

2021년 개발 제품의 성공사례 및 제품의 기술적인 이슈들과 2022년 신제품에 대한 개발현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동차, 포장 재료, 섬유, 파이프, 의료용, 일반 소비재 제품군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또한 LyondellBasell의 새로운 촉매기술과 도입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스페셜티 제품 중심의 기술 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어려운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LyondellBasell과의 적극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두 가지 큰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하여 폴리미래가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다.

기술팀 박세영 대리

IT Infrastructure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 완료

폴리미래는 기존의 Infrastructure 시스템에서 파악된 문제점들과 보안이슈 사항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업무 환경(COVID-19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IT Infrastructure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9월 시작했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변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사 내 IT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보안 취약 부분 개선
- 일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함에 따른 사용자 컴퓨팅 환경 개선(메일 서비스(모바일 환경 포함), Office 환경, 클라우드 저장소 등)
-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화상회의 서비스 개선
- 향후 변화되는 IT 환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IT 환경의 기틀을 마련(하이브리드 환경 구성 → 클라우드 서비스와 로컬 시스템 서비스와의 혼용 구성)

이와 병행하여 이전 시스템을 사용해오며 파악된 개선사항들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시스템 구성 방안에 대해 시뮬레이션 하며, 보안 향상과 더불어 사용자 업무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환경을 구현하였다.

프로젝트 착수 후 202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하였으며 2월 말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기획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Infrastructure 시스템 고도화의 개선 범위는 SAP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Infrastructure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슈퍼 유저 양성을 통해 현업 실무자들이 업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향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IT 환경을 구현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기획팀 박재성 과장

여수시청 안전환경 점검에서 안전 최우수업체로 선정

폴리미래는 지난해 11월 26일, 여수시 주관 2021년 하반기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폴리미래의 고압가스 배관에서부터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 안전과 연관된 설비 점검과 회사의 절차 및 규정에 대한 시스템 관리 내용까지 확인했다. 점검 결과 별도의 지적이나 조치사항 없이 마무리되어 폴리미래의 우수한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여수시 주관 안전점검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의 안전점검을 통해 높은 수준의 안전 요구 사항을 적용시키고 발전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장이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협력하여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폴리미래는 그동안 안전환경보건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여수시 주관 안전 최우수업체에 선정되는 실적을 이루기도 했다. 2022년도 역시 자만하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정준호 대리

인사동정

승진	부서 / 보직변경	구매팀 박정희 공무팀 권진홍
2022. 1. 1부 윤기업 부사장	2021. 10. 1부 사업자산관리팀 이광섭(팀장/상무) 기술팀 명수은	2022. 1. 17부 사업자산관리팀 정재근 내수영업팀 임종석
입사		정년퇴직
2021. 11. 12부 노충진, 신동호, 유재경, 조윤상, 최성제, 허대승	2021. 11. 1부 생산2팀 황춘(팀장) 생산1팀 박종영(팀장) 생산3팀 이홍석(팀장)	2021. 12. 31부 생산2팀 김양수 생산3팀 박철희 생산1팀 양용수
2022. 1. 1부 사업자산관리팀 김동현	2021. 12. 1부 안전환경팀 조승래	
파견		
2022. 1. 1부 이길중 상무 울산피피 파견	2021. 12. 27부 생산3팀 김성현	
	2022. 1. 1부 공무팀 임승연(팀장) 사업자산관리팀 박홍준 지속성장팀 정상호	

메타버스, 이미 다가온 미래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_ 킴상윤 교수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일상의 경험

최근 코로나19가 세상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피해는 심각하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당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상점이 문을 닫거나, 단축 영업을 하는 등 제한 조치가 있었다. 아직까지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인류에 가져온 변화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인간에게 숨겨져 있던 욕구를 들춰내거나, 수 년 후 기대됐던 변화를 더 빠르게 가져온 부분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행으로 우리는 비대면(Un-contact)을 꼽는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세상에 없던 것은 아니었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일상을 파고든 2000년대 전후부터 다수의 업종에서 비대면 영역은 존재해왔다. 그러나 일부 영역 혹은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비대면이 조금씩 확대되던 중이었다. 과거, 2000년 즈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은 온라인 웹으로 예매가 이루어졌으나, 즐겨 먹는 짜장면 주문은 전화로만 가능했던 것처럼 말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디지털이 미치지 못한 전통 영역까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아예 과감하게 메타버스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업체들도 있다. 2000년대 이후 발전해온 전자상거래 기술은 소비자의 쇼핑 과정 중 '결제'를 손쉽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소비자들은 판매업체가 올려놓은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제'라는 행위를 버튼 하나로 진행한다. '상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클릭 몇 번으로 결제할 수 있다.', '문 앞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쇼핑 전체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간에 많은 단계가 생략되어 있다. 제품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정보를 꼼꼼히 비교하려면 '웹 뱅킹'이 필요하며, 선택한 제품을 카트에 담는 재미를 즐길 수 없다. 쇼핑의 재미가 그 과정에 있다면, 전자상거래는 별 재미없이 편의만 제공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유통업계의 메타버스 전환 시도는 바로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가 쇼핑에 대한 진정한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

유통업의 메타버스 트렌드

월마트의 VR 쇼핑은 실제 마트에 방문하여 물건을 고르고, 선택하고, 쇼핑 카트에 넣고, 데스크에서 결제하는 경험을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가상에서 경험하게 해준다. 이용자들은 단순히 빠르게 구입하여, 물건을 받는 최종 목적 달성 뿐만 아니라, 쇼핑 과정에서의 재미와 다양한 경험을 총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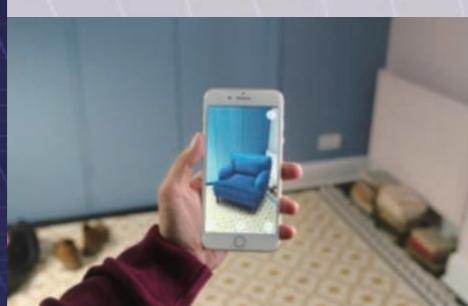
AR(증강 현실) 기술도 쇼핑 영역에 파고들고 있다. AR의 기본적인 작동방식은 현실세계에 데이터를 겹쳐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현실의 공간이나 사물을 인식할 때, 눈과 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AR 기술을 활용하면 가상 공간의 디지털 데이터를 현실세계에 겹쳐서 보여준다. 이용자는 눈과 귀만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월마트의 VR 쇼핑 사례 (출처 : 월마트)



METAVIERS



스웨덴의 가구업체 이케아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 손님이 줄어들자, 앱에 AR 기술을 탑재하여 고객들이 선택한 소파를 직접 집 거실에 놓아볼 수 있다. 과거 우리는 가구를 구입할 때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 이 일반적이었지만, 메타버스 기술들은 현실로 착각할 수 있는 정교한 가상 공간을 만들어 가구를 우리 집 거실에 놓아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화면이 작은 메타버스 세상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현실과 너무 괴리가 크다. 조잡하다. 불편하다.”라고 인식한다면 메타버스가 아니지만, “정교하다. 현실로 착각할 만하다. 현실세계의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인식한다면 바로 그것이 가상과 현실이 결합하는 메타버스 세상이 된다.



*CPS(Cyber Physical System)란, 가상세계와 물리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 하는 것

CPS(가상물리시스템)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결합

최근 이처럼 VR, AR 기술 등 가상세계를 활용하는 기술이 진전되면서, 우리는 가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가상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Web 1.0 시대의 변화를 우리는 ‘가상세계 창조 혁명’으로 칭할 수 있다. 물리 세계에 있던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로 이동하면서, 가상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혁명’이었다. 20세기 후반 IT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정보를 처리, 저장, 통신하고, 결합시키고, 복제하는 비용이 급격히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정보화 혁명, 인터넷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3차 산업혁명이 곧 가상 세계 창조의 과정이었다. 가상 세계 창조가 완료된 결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개념으로 CPS(Cyber Physical System : 가상물리시스템)를 꼽는다. 3차 산업혁명으로 완성된 가상 세계가 이제는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우리는 수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가상 세계 창조’ 이후의 세계다. 요컨대, 1980년대부터 약 30년에 걸쳐 진행된 3차 산업혁명이 물리 세계의 정보를 가상 세계로 옮겨 놓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집중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가상 세계를 물리 세계로 회귀시키는 아날로그화(Analogization) 또는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를 연결시키는 것에 집중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가 동일시 되기도 하고, 이를 넘어 오히려 가상 세계가 물리 세계를 지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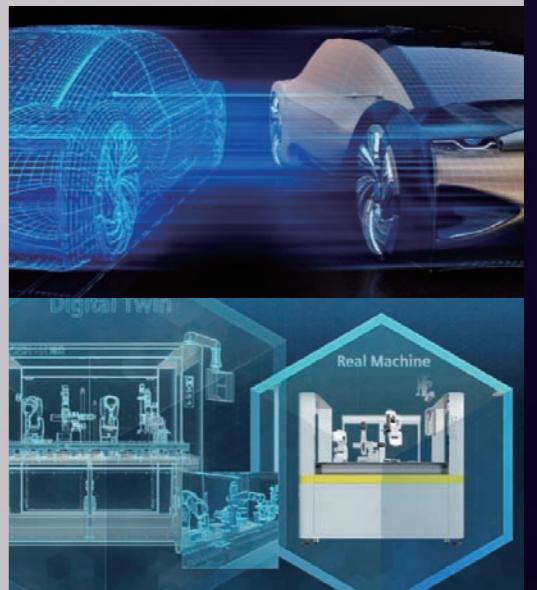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시스템 (자료 : blog.waymo.com)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린 자율주행차가 대표적 사례다.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 시스템의 원리를 살펴보자. 자율주행차가 갖고 있는 라이다(Lidar)라는 센서를 통해 물리적 세계의 장애물과 거리 모습, 신호등을 인식한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이를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처리하여 가상공간에 구현한다. 이를 자율주행에 활용한다. 정확히 말하면,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현실세계를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를 똑같이 복제한 가상공간을 주행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CPS,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는 모두 같은 맥락

현실을 그대로 복제한 가상공간을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표현한다. 주로 제조업, 에너지 산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인데,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와 같은 지능화, 원격제어가 필요한 산업 영역에서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다. 전 세계 스마트 공장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지멘스는 디지털 트윈 개념을 적용하여, 현장의 설비를 디지털 공간에 디지털 쌍둥이로 구현한다. 작업자는 자신의 컴퓨터 속 이 디지털 쌍둥이를 제어하면 현장의 설비가 그대로 연결되어 실시간 제어된다. 지멘스는 원격 제어 솔루션을 통해 많은 고객사의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인 월마트의 VR 가상 쇼핑, 구글 웨이모의 가상공간을 활용한 자율주행, 지멘스의 가상 공간을 활용한 원격 설비 제어, 세 사례 모두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를 연결 혹은 상호작용하게 하여 새로운 가치를 얻는다. 쓰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디지털 기술로 인한 가상 세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가 연결되거나, 상호작용하거나, 서로 결합하여 쌍둥이가 되거나, 혹은 아바타라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직접 가상 세계로 들어가거나, 이 모든 것이 같은 맥락의 변화 아닐까?



산업 현장에서의 디지털 트윈 구현 (자료 : Siemens)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함께 알아보아요!

2022년 올해부터 교육, 복지, 행정, 육아, 환경,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 이에 주요 정책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사항 등 알아두면 일상에 유익한 정보를 모았다. 어떠한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며 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알아보고 알뜰살뜰하게 챙겨보자!

자유기고가_명소연

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주목해 볼 만한 제도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2022년부터는 초/중/고 전 학년에게만 지원되던 무상급식이 유치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 대상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 내용 : 학교급식 복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중1과 고1 입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입학준비금이 초1 입학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대상 : 초1, 중1, 고1 입학생
- 금액 : 1인 20만원(초1), 30만원(중1, 고1)
- 내용 : 교복, 학습용 스마트기기 및 학교 권장도서 등의 구입 비용



경제

최저 임금액 인상(2022. 1. 1 시행)

2022년에는 최저 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2021년 대비 5.1% 인상) 인상된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914,44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된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인상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간 육아 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육아 휴직 1개월~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의 80%인 월 상한 150만 원을 지급한다.



환경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방식에 변화가 생기므로 우리 모두 환경 보호를 위해 달라진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반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시

- 대상 :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거주 주민



※ 투명페트병은 수거해 재처리 후 의류, 가방 등의 섬유 원료로 재생산된다.

여행

코로나19로 인해 여권을 사용한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이 여권은 전자 여권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차세대 여권 발급 개시

- 신원정보면 보안성 강화
종이재질 →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변경,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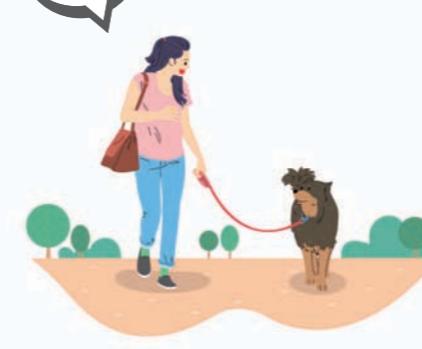


동물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책 시 수반되는 정책도 강화되었다. 동물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주요 동물 정책에 주목하자.

동물보호법 개정내용 시행

- 반려견 등에 안전조치 의무 추가
- 소유자 등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2m 이내 길이 유지
-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 등이 직접 안거나 목줄의 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위반 시 5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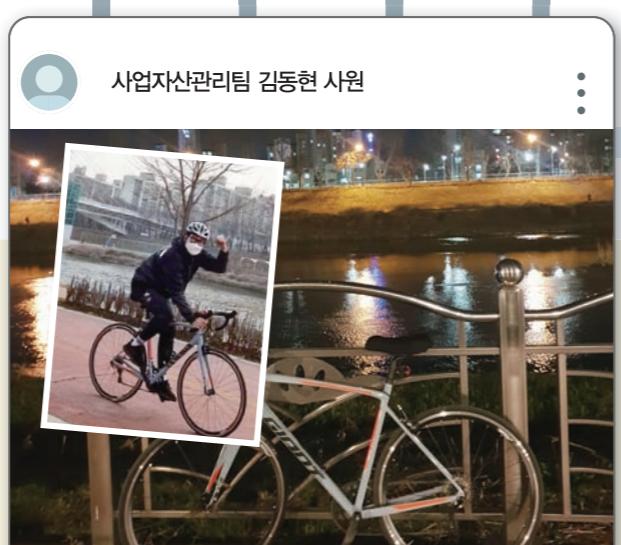
일상에 숨을 불어넣어 주는 나의 원동력은?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으세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일상 안에서 이뤄나갑니다. 바로 그 일상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또 새롭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폴리미래인들이 잠시 나를 돌아보며 자신의 일상을 밝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이들의 높은 행복지수를 함께 보겠습니다.



실링왁스로 힐링을…

코로나19로 인해 만나기 어려운 친구들과 편지로 안부를 주고받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실링왁스 과거 장식이나 포장 등에 이용되었는데요, 다양한 재료와 인장을 이용 할 수 있는 점이 매력입니다. 왁스를 녹이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편지에 재미와 정성이 더해져 더욱 뜻깊어지는 점이 가장 장점인 취미입니다.



삶의 원동력인 한강 라이딩, 같이 하실래요
안양천~한강 라이딩!
주말 한강 라이딩으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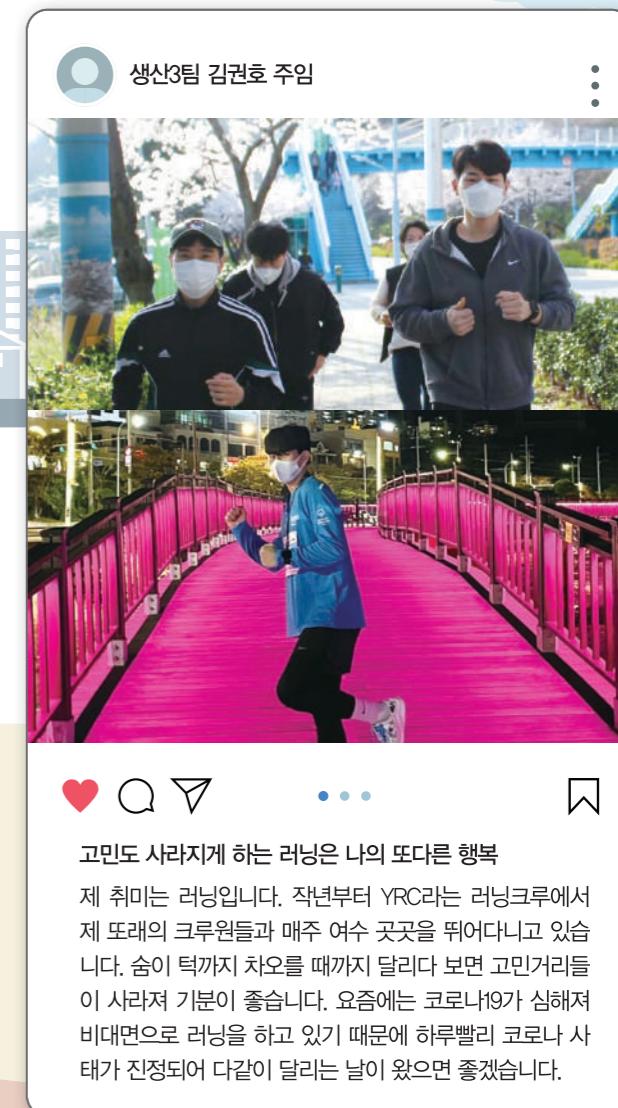


바다를 눈에 담는
이 시간이 최고의
힐링 타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해외 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맘껏 하며 마음을 달래 봅니다. 바다를 보면 힐링해요!



마음의 안정을 얻는 장도 산책하기

기습이 답답할 때 저는 응천에 있는 작은 섬, 장도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다 위 다리를 건너 장도에 도착하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도 전망대에 올라가 바다 뷰를 보고 나서 장도 카페에 들러 차를 한잔 마십니다. 하루 3번, 카페에서 작은 연주회가 열리는데, 음악과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수에 오시면 꼭 장도에 방문해보세요!



고민도 사라지게 하는 러닝은 나의 또 다른 행복

제 취미는 러닝입니다. 작년부터 YRC라는 러닝클럽에서 제 또래의 크루원들과 매주 여수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리다 보면 고민거리들이 이사라져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가 심해져 비대면으로 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다같이 달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개발팀 심수연 주임

암벽등반으로 활력지수 업!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암벽등반, 어느새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암벽등반을 시작한지 반년이 채 안 되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면 더 제대로 배워 볼 계획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활동할 예정이다.



문화로 봄을 맞이해

다시, 가지에는 파릇한 씩이 움트고, 선명한 색감을 뿐내는 봄꽃들이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트린다. 그렇게 봄은 다시 우리 곁에 찾아왔다. 길게 이어지는 팬데믹으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꿈을 싹 틔울 짜릿한 감성 한 스푼이 필요하다. 발길 달은 그곳에서 마주하는 한 편의 공연과 전시는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환기하면서 봄볕 같은 힐링을 전할 것이다.

문화칼럼니스트 _ 유진



SEOUL



Exhibit

전시 <어느 봄날, 테레사 프레이타스 사진전>

포르투갈 사진작가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테레사 프레이타스는 실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색채의 풍부함을 고찰하고, 생동감 있는 상상력을 활용해 자연, 여행, 건축, 꿈 등을 혼합하여 연출하는 작가다. 햇살이 따스한 리스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도 바닷가 마을에서 사는 테레사는, 그 때문인지 봄을 닮은 밝고 동화적이며 평화로운 분위기가 작품 속에 묻어난다. 디올, 팬톤, 넷플릭스 등과도 협업한 바 있다.

이번 전시회 '스프링타임 딜라이트(Springtime Delight)'도 테레사 특유의 차분하면서 꿈처럼 달콤한 영화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파스텔톤의 작품 80여 점은 '꽃 사이 사이', '봄의 꿈', '홈 그리고 컬러', '도시의 봄', '라 무라야 로하', '물가에서' 등 총 6개 섹션으로 나뉘어 꽃이 가득한 들판, 도심의 화사한 거리, 봄이 만개한 순간으로 관람객을 초대한다. 테레사의 작품을 따라 봄의 원더랜드에서 달콤한 기운에 취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자.

한 줄 추천

이국적 풍광이 품은 파스텔톤의
봄을 만나고 싶다면!



사진_사야컴퍼니 제공(좌) © Teresa Freitas, Subject Matter Art, and Artémios/CCOC
- Afternoon of Delight III, 2019 (우) © Teresa Freitas, Subject Matter Art, and
Artémios/CCOC - Rothko Spring, 2018

- 기간 : 2022. 1. 29 ~ 4. 24
- 시간 : 월~목 10:30 ~ 20:00(입장 마감 19:00)
금~일 10:30 ~ 20:30(입장 마감 19:30)
- 장소 : 더현대 서울 ALT.1
- 가격 : 성인(만 19세 이상) 15,000원, 소인(48개월~만 18세)
13,000원

전시 <우연히 웨스 앤더슨:
어디에 있든, 영감은 당신 눈앞에 있다>

2017년 여행 계획을 짜던 미국의 한 부부는 어느 날 우연히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에 등장할 것 같은 장소를 보게 된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을 통해 동화 같은 파스텔톤의 색감과 대칭적인 구도의 연출을 통해 전 세계 아티스트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부부는 '웨스 앤더슨 다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accidentallywesanderson)에 업로드하기 시작했고, 계정은 점점 유명해져 전 세계 팔로워(일명 모험가)들은 자신이 발견한 특별한 장소의 사진을 제보한다. 부부는 그렇게 받은 이미지를 선별해 피드를 꾸리면서 큰 프로젝트로 성장시켰고, 모험가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이 전시는 바로 그 세계 각지에서 모험가들이 찍은 사진을 한 곳에 모은 것. 어찌 보면 집단 지성의 결과물인 셈이다. 300여 점의 사진 속에는 웨스 앤더슨의 시그니처인 완벽한 대칭 구도와 미장센, 동화 같이 매력적인 색감이 무한한 상상력과 더불어 투영돼 있다. 또, 미로처럼 이어진 500여 평 규모의 전시장은 여행의 과정을 떠 올리게 하는 10개의 섹션으로 다채롭게 구현하였는데 잠시나마 '웨스 앤더슨스러운' 순간 속에서 팬데믹 끝에 재개할 여행도 계획해보고, 동시에 일상 속 익숙한 장소라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주변을 둘러보게도 만든다.

한 줄 추천

그저 전시회에 갔을 뿐인데 '우연히'
내 안의 상상력과 미적 감각이 꿈틀거릴지도?!



- 기간 : 2021. 11. 27 ~ 2022. 6. 6
- 시간 : 10:00 ~ 19:00
(입장 마감 18:00)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휴관,
공휴일 정상개관

- 장소 : 그리운드시소 성수
- 가격 : 성인(20세 이상) 15,000원,
아동/청소년(36개월~19세) 12,000원

사진_미디어엔드제작



뮤지컬 <프리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고 이후 평생 후유증 속에 살면서도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삶의 환희를 잊지 않았던 당대 최고의 위대한 여성 화가이자 멕시코의 혁명가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생애를 'The Night Show'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형식으로 풀어낸 창작 뮤지컬이다. 트라이아웃 당시 '지금 당장 무대에 올려도 손색없는 작품'이라는 호평과 함께 제14회 DMF 창작 뮤지컬상 수상을 비롯, 제15회 DMF에 공식 초청되며 작품성을 입증받았다. 뮤지컬 '레베카', '엘리자벳', '모차르트' 등 정통 유럽 뮤지컬을 성공적으로 로컬라이징 했을 뿐만 아니라, '마타하리', '웃는 남자', '엑스칼리버' 등 한국형 흥행작을 탄생시킨 EMK의 첫 번째 중소극장 프로젝트로, '프리다' 역에는 최정원, 김소향이, 레플레하 역에는 전수미, 리사, 데스티노 역에는 임정희, 정영아가 출연해 객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프리다 칼로(1907~1954) : 현대 미술사상 가장 강인하고도 열정적인 삶을 그림에 담아내 중남미 여성 작가 중 최초로 뮤지컬 작품이 전시됐을 뿐만 아니라, 파블로 피카소, 마르셀 드뷔시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당대 최고의 여성 예술가이다.

한 줄 추천
불꽃처럼 화려하고 열정적인 '프리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울림 당신의 가슴을 뜨게 할지도?!



- 기간: 2022. 3. 1 ~ 5. 29
- 시간: 화, 목, 금 19:30 수, 토, 공휴일 15:00, 19:30 일 15:00 *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
- 장소: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 가격: R석 80,000원, S석 70,000원



영화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

수학자, 탐정, 스파이, 슈퍼히어로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영화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에서 필모그래피 사상 가장 사랑스러운 로맨티스트로 변신했다. 이 영화는 고양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19세기 영국 런던 출신의 화가 '루이스 웨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오빠는 쓸모없는 고양이들에게 돈을 갖다 부었어!"라는 영화 예고편 대사로도 알 수 있듯 그가 살았던 시대에 사람들은 고양이에 대해 굽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고, 그 이미지를 깨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루이스 웨인은 자신의 시선을 통해 고양이를 사랑스럽고 익살스럽게 담아냈고, 대중은 그의 그림에 열광하며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게 된다.

영화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는 그림 말고는 모든 게 서툴렀던 화가 '루이스'에게 운명 같은 사랑인 '에밀리', 그리고 고양이 '피터'가 찾아오면서 만들어가는 다정다감한 로맨스다.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이 화가의 서사시 같은 삶에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밝혔을 만큼 이제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예술가 '루이스 웨인'의 이야기 위에, 아름다운 영상미까지 겹들어져 우리 앞에 어떠한 감동이 펼쳐질지 기대감을 모은다.

한 줄 추천
울림 모두를 다정하게 끌어안을
가장 사랑스러운 로맨스



- 개봉: 2022. 4. 6
- 감독: 월 샤프
- 출연: 베네딕트 컴버배치(루이스 웨인 역), 클레어 포이(에밀리 역), 올리비아 콜먼(내레이션) 등
- 등급: 12세 관람가



가족/아동극 <누가 내 머리에 뚫 porr?>

아이들과 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함께 볼만한 가족/아동극이 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초청작이자, 2013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 공연으로 선정됐던 <누가 내 머리에 뚫 porr?>가 여수를 찾아온다.

언어 표현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호기심 대상 1호는 단연 '뚫 porr'이다. 이 공연은 독일 작가 베르너 훌츠바르트의 베스트셀러 책 '누가 내 머리에 뚫 porr?'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친숙한 소재인 뚫 porr을 뮤지컬로 극화하였다. 땅속에 사는 두더지는 어느 날 해가 뜰 때는 안 뜰 때는 궁금하여 땅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뚫 porr을 받게 되고, 화가 난 두더지는 누가 자신의 머리에 뚫 porr는지 범인을 찾으려 헤매는 이야기다. 누구의 뚫 porr인지 밝혀내기 위해 집요하게 뚫 porr을 쓴 동물을 추적하는 두더지를 따라 어린 이들의 사고력, 판단력, 관찰력이 한껏 높아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 줄 추천
두더지와 함께 시작되는 범인 찾기로 우리 아이
호기심 UP! 즐거움 UP!

- 기간: 2022. 4. 16 ~ 4. 17 • 시간: 토, 일 11:00, 14:00, 16:00 • 장소: 여수시민회관



사진_극단 트렁 제공



앤서니브라운의 원더랜드 展



사진_(주)아트센터이다 제공

아시아 최초 공개되는 신작 <넌 나의 우주야, 2020>, <안니 스트의 멋진 하루, 2021>를 비롯해 앤서니 브라운의 대표작 원화 200여 점이 전시된다. 미디어아트, 놀이형 설치작품, 콜라보레이션 NFT 아트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는 것도 특징이다.

- 기간: 2022. 4. 28 ~ 8. 31
- 장소: 예술의 전당



리움 미술관 순회전 <인간, 일곱 개의 질문(Human, 7 questions)> 展



사진_전남도립미술관 제공

마음과 몸, 이성과 비이성, 나와 공동체, 실재와 가상,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인간상을 조명하고, 지금까지 당연시해 온 인간적 가치들에 대해 재고해보다.

- 기간: 2022. 2. 24 ~ 5. 29
- 장소: 전남도립미술관(광양시)

2022년 봄호 사보, 재미있게 보셨나요?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 또는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힐링 아트 컬러링에 나만의 색으로 물들인 분은 이메일(pmcmagazine@polymirae.com)로 응모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 응모 시 반드시 이름, 상품을 배송 받으실 주소를 기재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QUIZ!

Q1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종사자의 의견청취
- ②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 ③ 비전문인력으로 내부 TF팀 구성
- ④ 경영자의 리더십

Q2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몇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됐나요?

- ① 100인 이상
- ② 80인 이상
- ③ 50인 이상

Q3

이번 폴리미래 봄호에서는 생산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올해 생산팀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꼽은 것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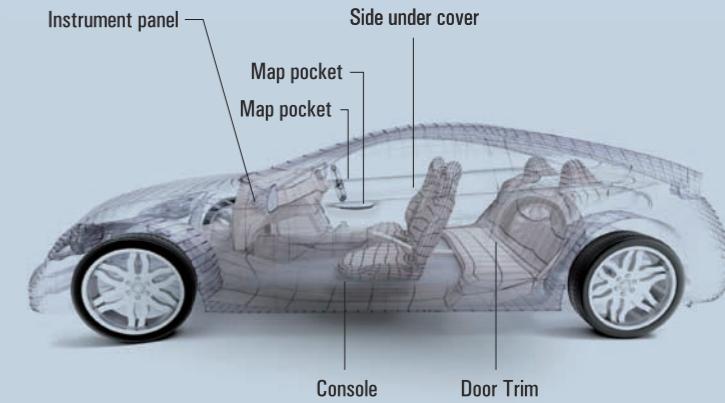
- ① 대정비(Turn Around, TA)
- ② 신규 공장 설비
- ③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프로젝트 추진
- ④ 신규 인력 총원

Healing
Art
Coloring!

통권 47호 정답 및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내수영업팀 임채희 대리

Hifax EP246P for EV Car interior trim

치수 안정성 및 고광택을 가진 혁신적인 PP



Hifax EP246P는 우수한 치수안정성과 고광택 특성을 가진 임팩트 코폴리머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프리미엄 자동차의 내·외장재 및 전기·전자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